

라파예트, 미국은 당신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걸세



송동훈의 세계 문명 기행

워싱턴 D.C.의 라파예트 공원

백악관 앞의 피난처, 라파예트 공원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과 집을 겸하고 있는 백악관은 미국 권력의 중심이다. 동시에 민주주의의 상징 중 하나다. 대통령이란 직(職) 자체가 미국 독립혁명 이후 왕을 대신해 선출된, 국민을 대표하는 역사상 최초의 임기제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역대 미국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해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 왔다. 물론 예외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대통령들은 자기 몫을 해냈다. 바로 이곳 백악관에서, 건물 전체가 하얗다고 해서 백악관이라 하지만 엄연히 앞과 뒤가 구별된다. 펜실베이니아 대로를 사이에 놓고 라파예트 광장과 마주하고 있는 북면에 앞에 해당한다. 대통령 공원과 워싱턴 기념탑으로 이어지는 남면이 뒤다.

처음 백악관에 갔을 때부터 정면에 있는 공원에 '라파예트(Lafayette)'란 이름을 붙인 게 특이했다. 그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파예트 후작은 미국 독립혁명 때 참전한 프랑스 대 귀족이었다. 라파예트 공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빈다. 수많은 시위대가 각자 주장을 쏟아내고, 수많은 관광객이 연신 사진을 찍어대니 난장(亂場)이 따로 없다. 라파예트 공원은 백악관 근처에서 그런 소란스러움을 피할 유일한 공간이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미국의 7대 대통령이며 '대중민주주의'의 개척자로 여겨지는 앤드루 잭슨(Andrew Jackson·재임 1829~1837)의 거대한 기마상이 놓여 있다. 공원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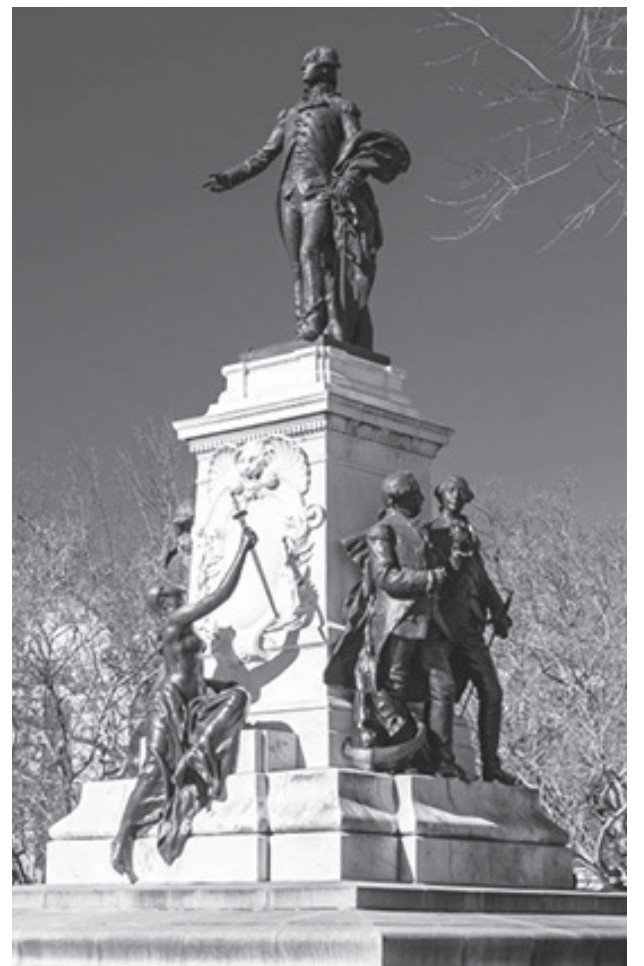
름을 부여한 라파예트의 동상은 남동쪽 모퉁이에 있다. 높다란 기단 위의 라파예트는 몸을 비스듬히 튼 채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백악관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미국의 주요 행정부 건물이다. 그렇다. 라파예트 공원은, 라파예트 동상은 백악관을 중심으로 한 미국 권력의 심장부에 있는 것이다. 젊은 프랑스인은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일까? 미국인들은 무슨 이유로 라파예트를 이토록 기념하고 있는 것일까?

식민지의 자유를 위해 참전하다

라파예트 후작(Marquis de Lafayette·1757~1834)은 프랑스의 명문 귀족이었다. 본명은 'Marie Joseph Paul Yves Roch Gilbert Motier'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길다. 그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작위와 재산을 상속받았다. 열여섯 살 때는 베르사유 궁정의 세도가

인 노아이유 공작의 손녀와 결혼했다. 앞날이 창창했다. 그가 성장하던 시기는 계몽과 이성, 자유와 혁명 시대였다. 1775년 시작된 미국의 독립전쟁은 그런 시대의 산물이었다. 유럽의 많은 젊은이가 매혹됐다. 라파예트 역시 그랬고, 또래 귀족들과 함께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하기로 맹세했다. 왕은 허락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프랑스 정부는 이 전쟁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함께하기로 했던 귀족 동료들은 미국행을 포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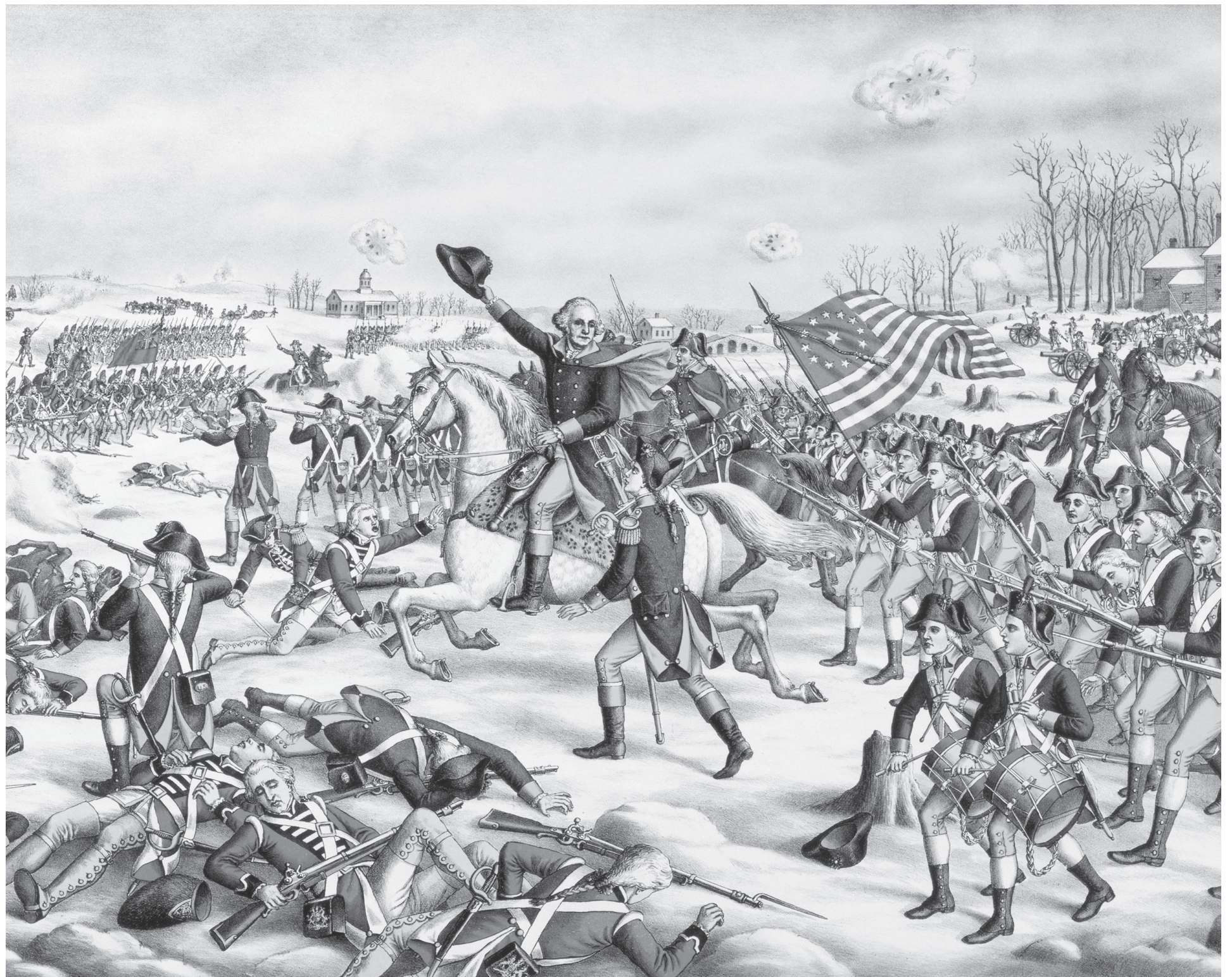
라파예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다는 대의명분에 그의 젊은 피는 끓어올랐다. 라파예트는 몰래 배를 타고 프랑스를 탈출해 아메리카로 갔다. 1777년 6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상륙한 라파예트는 필라델피아로 가서 대륙회의 대표들에게 독립전쟁에 참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스무 살도 채 되지



않은, 군대 경력도 전혀 없는 프랑스 귀족을 바라보는 식민지 사람들 시선이 고왔을 리 없다. 대륙회의 반응은 냉담했지만 라파예트는 열정적으로 그들을 설득했

▲ 워싱턴DC 라파예트 공원에 있는 라파예트 후작 동상.

다. 자유를 위해 싸우러 왔 (...11페이지에 계속)



▲ American military commander General George Washington leading the Continental Army in the Battle of Princeton during the American Revolutionary War, 1777.



▲ 라파예트 공원 뒤로 백악관과 워싱턴 기념탑이 보인다. 공원 한가운데 기마상의 주인공은 미영전쟁(1812년)의 영웅이자 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이다.